

# 꿈(夢)의 正體와 解釋에 對한 要約

徐 錫 培



대한한약이 지속적으로 발간된것도 벌써 6號, 그간 전문적 학술논문, 임상과 경험방들 그리고 문예 등에 관한 발표는 우리 한방인으로 당연한 과제지만 꿈(夢)에 관한 異色的論理로 귀중한 紙面을 할애한 것은 우리의 본 취지에 어긋난지 모르겠으나, 꿈도 우리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정신적 작용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우리 의약인으로서 전혀 무관심하게 취급할 수 없어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연구 그리고 先人들의 문헌,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등을 참고하고, 병행하여 正夢이나 靈夢은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미래의 실현에서 우리의 생활과 많은 연관이 있고 그를 적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 本誌에 요약하여 발표하오니 독자 여러분께서 흥미삼아 한번 고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꿈(夢)은 왜 꾸는 것이며, 우리생활과 건강,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꿈에 관한 연구는 예로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왔지만 아직까지 꿈에 대한 正體와 豫示의 판단을 확고부동하게 정립한 문헌이 없고 오직 경험에 의한 假想的철학과 과학적 논리로 기록되었으며 근세의 세계적 정신 분석학자인 「프로이드」도 꿈의 정체와 豫示의 판단을 나름대로 부단히 연구하였지만 명확한 정의는 留保하였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꿈은 허황된 空想이며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란 주장들은 꿈에 대한 깊은 철학을 파악하지 못한 의견이며 꿈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의욕상실만 안겨준다. 그러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이들의 경험에 의하여 더구나 우리 韓方界로서 生理的, 病理的, 精神分析學的으로 허황된 공상이나 미신으로 간주할 수 없는 근거는 이후 설명으로 납득할 수 있겠지

만 우선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꿈의 철학과 신비는 존재하는 것이며 설혹 꿈의 豫示가 100% 적중하지 않고 50%만 적중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철학의 한부분이며, 醫藥人이 病者를 100% 치유하지 못하여도 醫藥人에 대한 존재도는 우리생활의 한 단면이다.

인간이 꿈이 없으면 무의미한 삶 자체 뿐만 아니라 질식되고 칙흑같은 밤에 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이며, 여기서 꿈이란 미래의 희망사항, 포부들을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 수면중에 꾸는 꿈도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 章에서 꿈은 환각상태나 최면시, 백일몽, 공상 등을 정의함이 아니고 수면중에 뇌의 작용에서 나타난 思考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런 꿈을 제공하는 원인들을 細分하여 보면 신체적 또는 생리적현상에서 야기되는 꿈, 지난일들을 潛在意識에서 꿈으로 寫實化하는 예, 평상시 추상적 想像들을 수면시 꿈으로 반영하는 예, 뇌에 입력된 잡다한 관념들이 수면시 뇌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꿈들을 요약해서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1. 雜夢 - 잡다한 꿈으로서 건강이나 예시적 해석이 필요없는 꿈
2. 虛夢 - 허망된 꿈으로 심신허약에서 오는 꿈이 많고
3. 心夢 - 心夢부터서는 우리가 관심의 대상인데 心夢은 자신의 관념적인 것이 꿈에 재현하는 것이고
4. 正夢 - 豫知的인 것이며 철학적,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豫示의 꿈일수도 있고
5. 靈夢 - 신영적 존재가 예시한다든지 종교인이 신앙적 신심이 수양의 극치에서 오는 예시적 꿈이라 할 수 있다

이상 다섯가지는 우리가 정신분석학 측면에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고, 인체의 생리적 현상에서 나타난 꿈들은 우리 韓方界로서 전혀 무관심하게 취급할 수도 없어 아주 요약해서 몇가지 例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면중에 소변이 보고싶기에 꿈에 소변을 보는 꿈,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꿈, 이건 생리적 현상이다.

■ 꿈(夢)의 正體와 解釋에 對한 要約

氣가 上昇하며 流動되기 때문에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

氣가 下降하면 침체되고 잠복되기 때문에 높은데서 떨어지고 물에 빠지는 꿈들은 관념적 현상보다 생리적 현상에서 기인하는 例가 더 많다.

肝氣가 盛하면 울창한 숲속을 헤매고 氣가 逆하면 성질(怒)내는 꿈을 꾸고, 心氣가 盛하면 火災나 웃(笑)는 꿈을 꾸고

脾氣가 盛하면 숲없는 광야나 습지를 답보하고 歌舞를 즐기며,

肺氣가 盛하면 금속성 공장이나 금속성 騷音을 견청하고, 수심과 비탄에 빠지며,

腎氣가 盛하면 수영이나 홍수 등을 목견하고 공포감에 떠는 꿈을 꾸게 된다.

여기서 盛이라 함은 그 기능이 정상적 상승이나 또는 病的작용에서 오는 것을 의미한다.

자못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할 것은 꿈 行爲자체가 아무리 생리적 현상에서 야기된 꿈이라고 하지만 心的충족 여하가 미래의 현실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령 소변을 보는 꿈을 꾸었다고 가상하자. 소변을 질금질금 소량으로 보는 꿈과 소변을 보았더니 어떻게나 많은 소변을 보아 市街를 침범하였다면 충족의 극치가 大夢이라 미래의 현실에서 대성할 豫示다.

또 한 例로서 갈증이 나서 물을 그릇으로 마신것과 강물을 통째로마셔 강물이 마를 정도라면 미래의 현실에서 그의 운명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약간의 노여움은 일의 불만을 예시하고 천하를 굴복할 정도의 노여움은 일의 성취를 암시한 예시다 꿈에 타인으로부터 매를 맞거나 刺傷을 입으면 기분 나쁜 꿈이지만 비행기로 폭격을 당하든지 대포로 공격을 받았다면 공포의 극치이기 때문에 극치는 그와 반대되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길몽이 분명하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들 꿈은 반대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例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가령 꿈에 우리몸을 오물(똥, 오줌)이 더럽혔다고 가정하자. 오물이 몸을 더럽혔으니 기분나쁜 꿈, 꿈은 반대이기에 미래에 기분좋은 꿈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꿈에 기분나쁘니 미래에도 기분나쁨을 예시한 꿈이다.

여기서 반대현상이란 극치에서 오는 충족을 잇어서는 않된다. 적은 오물이 몸과 옷을 더럽혔다면 기분 나쁜 꿈이지만 똥이 산더미같이 많이 쌓였다든지 큰 똥더미에 옷을 흠뻑 버렸다던 극치의 현상은 반대로 나타난다.

미수에 그친 性交나 창녀, 추악한 여인과의 성교는 불길한 꿈이고 미인이 나 자기 부인과 유쾌한 성교는 어떤 일거리가 성취되는 암시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시대 「줄리우스 시저」가 꿈에 자기 어머니와 성교하고 훗날 大地를 소유하였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 얼마나 패륜되고 부도덕한 꿈인가? 그러나 해몽가들은 극치를 나타낸 꿈이라 大夢이라고 결론지었다는 것

이상과 같은 몇가지 例로서 꿈이 생리적 또는 관념적 현상에서 나타난것이겠지만 우리의 심적충족에서 길흉이 좌우되니 우리인간이 얼마나 靈感的 존재인가를 다시한번 감탄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리는 正夢정도로서 正夢은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재들이며 두서너가지 더 正夢에 대하여 밝히고저 한다.

꿈에 까치가 요란이 울고 날아다닌다든지 집안을 쓸고 청소한다면 뒷날 귀한 손님이 온다는 예시며, 말에 안장을 깔고 말을 탄다든지 기차를 타고가는 꿈 등은 미래에 遠行할 일이나 여행할 일거리가 생기고, 꿈에 자신이 도둑이 되어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들키지 않으면 일이 성취되고 들키면 손재나 창피할 일이 있다.

우리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것이 靈夢이다. 靈夢은 雜夢이나 虛夢, 心夢, 正夢과 같이 자주 꾸는 꿈이 아니고 꾸었다하면 다소 신비적이고, 靈夢은 正夢과 같이 어떤 극적전환이나 반대적현상으로 豫示되지 않고 사실적 예시로서 또는 비유의 예시로서 나타난다.

## ■ 꿈(夢)의 正體와 解釋에 對한 要約

靈夢은 주로 신영적예시, 선영적예시, 수양된 인격자의 예시 또는 우연적인 예시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고민거리, 난관 등 문제를 풀지못하고 방황할 때 암시적 영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가 간혹 있다.

正夢이나 靈夢을 해석하는데 있어 각자의 叡智的판단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동일한 꿈자체도 시간과 공간, 각자의 위치에(학생, 군인, 상인, 정치인, 기타)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

비유의 한 例로서 筆者의 스승께 들은 예기인데 그분의 스승인 許醫께서 어느 여인의 유산방지 일화다. 그분께서 여름 한가한 시간을 틈타 바둑을 두고 있는데 30代 부인께서 유산기미가 있어 許醫에게 유산방지 약을 지으러 갔다. 許醫께서는 약은 지어주지 않고 계속 바둑만 두고 있는지라. 부인께서 사정을 하였으나 좀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 시간은 흘러 어둠이 들기 시작하니 바가지를 들고 나가 벼논에서 이슬을 반바기정도 받아다가 주면서 가서 정성껏 복용하라 하였다. 許醫의 지시대로 하였더니 유산은 멈추고 무탈하였다. 부인은 좋은 비방을 얻어 간직하고 있던차 이웃마을에서 유산기 있는 부인이 있어 자신의 내력을 일러주었더니 그 분은 먼동이 트기 바쁘게 벼논에 가서 이슬을 받아다 마셨는데 방지는 커녕 유산이 되고 말았다. 유산을 모면한 부인이 許醫에게 찾아가 자신은 유산이 방지되었는데 그분은 유산이 되고 말았다는 원망조로 문의하였더니, 許醫께서 저녁이슬은 지표에서 상성된 이슬이고, 아침이슬은 하늘에서 하강된 이슬이라 그 이치에 의미가 있다고 일러 주었다.

같은 이슬이라도 시간의 차이에서 상반된 결과가 있듯이 꿈의 例도 시간의 차이에서 상반된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이 허다하다.

夜半이전의 꿈과 夜半이후의 꿈이 생리적 작용으로 前者는 경험적(경과지사)이면 後者는 미래적인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위치에 있어서도 각자 해석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학생은 입학이나 시험에 가게되게 해석될 것이며, 군인은 戰果에, 商人은 財物에, 政治人과 官僚는 출세나 승진에 관계된 해석이 따르니 동일한 꿈이라도 시간과 위치의 차이에

서 叡智의 해석이 판이할 수 있다

前述한 「줄리우스 시저」 같은 위대한 분이 어머니와 性交한 꿈을 꾸었기에 大地를 얻었지만 비천한 존재가 그런꿈을 꾸었다면 패륜적인 미래현실을 경험할지 모르며 太祖李成桂 같은 분이 등에 서가래 세계를 짊어지었기에 무학 대사가 왕이 될 꿈이라고 해석하였지, 일개 서민이었다면 다른 해석이 있었을 것이라고 筆者의 意見을 첨가하고자 한다.

끝으로 健康에 관한 꿈 몇가지만 論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간혹 악몽을 꾸는데 악몽은 심신의 허약에서 오는 수가 있고, 痰飲 瘀血 등에서 악몽을 꾸는 수도 있다.

痰飲이나 瘀血이 胸膈, 腸胃, 心房部位에 瘀滯되면 꿈에 귀신으로 변하여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夢壓症이 오니 이런 類는 치료를 요하는 꿈이다.

婦人臟燥證에 甘麥大棗湯을 쓰는데 此病이 바로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甚하면 잠을 깨고서도 神靈所作의 행동을 하며 간혹 점술가로 변할수도 있다.

다른 例로서 어떤분이 신발(靴) 잃어버린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하자. 신발 잃어버린 꿈은 논리적으로 좋은 꿈일 수 없으며 그 꿈을 꾸고서 나쁜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문제는 그분이 신발잃은 꿈을 자주 꾸었다는데 있다. 그분은 언젠가 작은 신발을 신어 다소 고통을 받은일이 있었다든지 말초足指를 다쳤다든지한 경험이 있는 분이며, 말초신경은 뇌에 입력이 잘 되기때문에 신발 잃어버린 꿈을 자주 꾸게되니 이는 생리적 현상에서 오는 꿈이지 반드시 미래 지향적인 꿈은 아니다

한가지만 더 例를 들자면 이빨(齒)빠지는 꿈도 치아에 이상이 있어 꾸는수가 많으며 이빨빠지는 꿈을 꾸었다고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과 같이 꿈의 발생원인이 여러형태가 있으며 그중에 생리적 현상이나 병적작용에서도 꿈의 소재를 제공하는것도 잊어서는 않된다.

우리는 신년초나 혹은 아침에 금년에 좋은 꿈 꾸었는가, 오늘 좋은 꿈 꾸었는가 문인사를 간혹한다. 물론 좋은 꿈이나 大夢을 꾸는것이 좋다 그렇다고 좋은 꿈이나 大夢을 자기마음대로 꾸게 되는가, 그러나 어느정도 가능하다

## ■ 꿈(夢)의 正體와 解釋에 對한 要約

우리는 자기 운명은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말을 많이 한다. 맞는 말이다. 이제까지의 논리가 꿈의 정체와 해석에 대한 요약으로 하였으니 꿈으로 인한 운명적 변화를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것을 견주어 말한 것이다. 분명한것은 누차 上述하였지만 좋은 꿈을 꾸면 기분도 좋고 좋은 일을 미래의 현실에서 豫示함이고, 기분나쁜 꿈을 꾸게되면 깨어나서도 기분나쁘고 뒷날 기분나쁜 일을 예시한다는 정도는 우리 모두 상식적이니 어떻게하면 좋은 꿈을 꾸고 나쁜 꿈을 꾸지않아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꿈은 평상시의 생활환경과 지난일들이 잠재의식에서 惹起되기 때문에 항상 일상생활이나 思考들을 善行과 德裕, 奉仕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다보면 기분이 좋고 기분좋은 마음으로 잠을 자면 좋은 꿈을 꾸게되며 일상생활이 추악하고 분노하고 탐욕하다보면 기분 나빠질 수밖에 없고 기분 나쁜 가운데 잠을 자면 좋은 꿈을 꿀 수 없으니 미래의 현실에서 좋고 나쁨의 운명은 不問可和니 운명은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논리도 꿈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모두 좋은 꿈을 꾸어볼 수 있는 素材들을 많이 만들어 미래의 현실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 운명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보시다

(학술위원 · 전남 곡성읍 읍내리 천우당한약방 ☎ 061-363-2609)